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준섭* · 이영분**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갖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이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실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략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충청북도 충주시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369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가설과 스트레스 완충효과(stress buffering effect)가설을 탐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설과 스트레스 완충효과가설의 부분적인 검증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대한 검증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표본 실직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였고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완충효과가설이 검증이 된 경우에도 완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이론검증을 위한 추후연구방향이 제시되었고 실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이 제기되었다.

I. 서론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기존 문헌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 가설에 의해 개념화할 수 있다.¹⁾ 첫 번째, 주효과(main effect)가설은 원만한 사회적 지지의 수용수준 자체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스트레스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기존문헌에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가설과 스트레스 완충효과가설 이외에도 교류가설(transactional model), 개인성향가설(personality characteristics model), 상황가설(contingency model) 등이 존재하지만 주효과와 완충가설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다(Auslander, 1988; Maguire, 1991)

유발상황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Hobfoll et al., 1986; Vaux et al., 1986; Payne & Jones, 1987; Schwarzer & Leppin, 1991; Thoits, 1982). 반면, 두 번째의 스트레스 완충효과(buffering effect)가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체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원만한 사회적 지지의 수용은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 또는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제 3변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매개변인(moderating variable)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효과 가설과는 달리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직 등과 같이 심각한 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논리이다(Aldwin, 1994; Cohen & Wills, 1985; Gore, 1978; Jones, 1991a, 1991b). 위의 두 가설의 개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 기존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실직자대상의 연구분석은 실직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개입의 측면에서, 또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이론검증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서비스개입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실적이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 개입방안이 매우 시급한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더욱 부각된다. IMF구제금융의 도입 이후, 실직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직으로 파생되어지는 경제적 기반의 상실과 더불어 실적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실로 명확하다. Kasl & Cobb(1978)은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노미(anomie)의 출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체험, 우울증의 심화, 낮은 자기존중감 등과 함께 정신병원의 입원률과 자살률의 증가를 경제불황과 고실업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 지적하였다. Brenner & Mooney(1983)는 실직에서 오는 소득의 감소,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알콜 등의 다양한 약물의 사용, 소득감소로 인한 필요한 의료서비스 수혜의 어려움, 가족갈등, 그리고 가족해체 등이 실적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영향인 것을 밝혀냈다. 국내에서 수행된 이시형(1998), 김재갑 외(1998), 그리고 김유순 외(1998) 등의 연구 또한 실직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실직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전략개발에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은 실직자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의 필요성과 함께 어느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검증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감하는 사회적 지지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개입의 “시기”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Koeske & Koeske, 1991).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함께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실직자대상의 연구분석은 서구문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완충역할의 수행여부(Cohen et al., 1986; Payne & Jones, 1987)에 관한 또 다른 경험적 탐구가 될 것이라는 측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영향을 탐구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분석(예, 김연수, 1995; 나동석, 1992; 서미혜 외, 1993; 정추자, 1992; 최정아, 1992)이 이루어졌으나 실직자 대상의 경험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직자 대상의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통해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개입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질문을 탐구하였다. 첫째,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상태는 어떠한 수준인가? 둘째, 사회적 지지는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떤 출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경감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전술한 세 가지 연구질문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의 검증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질문에 초점을 둔다.

II. 문헌고찰

1. 사회적 지지의 본질

사회적 지지는 기존 문헌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의 정의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어진 자원”(Cohen & McKay, 1984); “대처조력”(Thoits, 1986); “개인의 지배감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활동”(Caplan, 1974); “수혜자 공급자 모두가 수혜자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교환”(Shumaker & Brownell, 1984)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구체화한 Vaux et al.(1986)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가 근본이 되며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된 지지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다양한 개념정의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형태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한데, Cohen & McKay(1984)는 비물질적 형태의 지지인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지지와 물질적 원조를 의미하는 비심리적(nonpsychological)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였다. 또 심리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평가적(appraisal) 지지와 개인의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서적(emotional) 지지로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방법

론으로는 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양적으로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양적(quantitative)평가와 함께 수용주체인 개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는 질적(qualitative)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일부분의 연구는 단순히 개인이 수용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량적 측면만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적 지지의 수용주체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방법론을 대다수의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정의, 형태 그리고 측정방법의 다양성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의 다양성과 비일관성을 가져왔고 이것은 곧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많은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비판으로 인해 최근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의 경향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의 개념보다는 연구성격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의 개념, 형태, 그리고 측정방법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기존문헌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가족, 친구, 주요 타인 등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도구적 지지(예,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 등); 물질적 지지; 정보 지지(예, 충고 등); 그리고 정서적 지지 등의 긍정적 자원 내지는 사회적 대처자원(coping resources)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2.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인 주효과 가설은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ism)과 아노미(anomie)이론을 기초로 한다(Thoits, 1982). 이 가설은 지지적인 환경 자체가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체험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결국 인간에게 바람직한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중요성을 갖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개입에 주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 체험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생애 사건의 중요성을 배제한 채, 원만한 사회적 지지의 수용이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매우 원론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갖는 긍정적인 효과, 즉 주효과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연구들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예, Hobfoll et al., 1986; Schwarzer & Leppin, 1991; Thoits, 1982). 특히, 실직자 대상의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Gore(1978)는 배우자, 친척,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용이 높은 실직자가 사회적 지지수용이 낮은 실직자에 비해 더욱 낮은 빈도로 정서적 갈등을 겪는 것을 밝혀냈다. Jones(1991a; 1991b)가 수행한 실직자에 대한 두 차례의 연구 또한 사회적 지

지가 높은 집단의 실직자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또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재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을 발견했다. 또 미국 전역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Auslander(1988)의 연구에서는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원만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는 실직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의 실직자보다 양호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역할이 비 실직자의 경우보다 실직자에게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실직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자아심리학(ego-psychology)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가설은 실직 등 개인에게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두 개의 시점에서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평가의 시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는 해결능력을 높이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Cohen & Wills, 1985). 즉, 사회적 지지가 충분한 사람들은 생의 커다란 사건을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약화시켜 해결 가능한 문제로 평가하며 이는 곧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humaker & Brownell, 1984).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매우 심각하게 체험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가설보다는 스트레스 완충가설이 실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개입에 좀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역할이 검증된다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노력 “어떤” 시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가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직 등과 같은 삶의 커다란 변화에 의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완충가설을 탐구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예, Caplan, 1978; Cobb, 1976; Vinkor & Caplan, 1986), 또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설을 탐구한 연구들(예, Atkinson et al., 1987; Bolton & Oakley, 1987; Iverson & Sabroe, 1988; Kessler et al., 1987; Linn et al., 1985; Warr & Jackson, 1985)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완충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적 역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도 발견된다. Payne & Jones(1987)와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부재와 측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완충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부적절한 통계방법의 활용 등으로 완충역할을 검증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지지변인과

스트레스의 변인에 대한 측정 상의 혼입(confounding)의 문제를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부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망은 스트레스를 유발함과 동시에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거짓된 관계(spurious relationship)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낮은 사회적 지지의 수용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의 불명확성도 사회적 지지의 완충역할을 부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Koeske & Koeske, 1991).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Payne과 Jones(1987)는 기존문헌에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역할은 명백하게 검증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완충적 역할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Cohen et al.(1986)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다고 하더라도 회귀분석에서의 이 효과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3%를 넘는 경험적 분석이 거의 없어 이론적으로는 완충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완충효과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완충효과는 종속변인의 변량을 1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Rosenthal & Rubin(1982)은 완충효과의 설명력이 그것보다 훨씬 약해도 실질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기존문헌고찰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론에 대한 활발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과 연구 방법론상의 차이에 의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사회적 지지이론이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정 및 표본집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1998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충주시에 위치한 노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2명의 연구원이 설문기간 중 총 400부의 설문지를 실적수당 및 구직과 관련하여 노동사무소를 방문중인 실직자들에게 배포한 후 자발적인 설문지 응답을 요청, 총 37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지 완성도가 매우 낮은 1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369개의 설문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실직자들에게 설문지 응답을 요청, 응답률 92.5%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본집단 369명의 실직자들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집계되었고 성별구성에서는 남성(n=266, 62%)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 대다수의 응답자들(n=236, 64%)은 기혼상태로 집계되었고, 학력수준은 고졸학력이 148(40.1%)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밖에 대졸 74명(20.1%), 전문대졸 48명(13.0%)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실직과 관련된 표본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98년 7월 현재의 평균실직기간이 4.3개월(표준편차=6.08)로 집계되었고 과반수 이상의 표본실직자들(n=196, 53.0%)이 실직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사유에서는 정리해고(n=118, 32.0%)와 사업자의 폐업/도산(n=108, 29.3%)이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실직 이전의 직종은 대부분이 기술직(n=147, 39.7%) 및 관리사무직(n=91, 24.6%)에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응답자들의 월 평균 가족소득의 평균값은 2.81(2=51-100만원; 3=101-150만원)로 집계되었다. 가족 소득의 질문에서 유효응답자 317명 중 98명(30.9%)의 응답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명확히 시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2. 조사도구 및 주요변인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설과 스트레스 완충효과의 분석을 위해 스트레스는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들은 자기존중감, 알콜의존, 가족관계 그리고 심리적 병리증후의 4개의 변인들로 구성되는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변인은 주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인으로, 또 스트레스 완충효과의 검증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매개변인(moderating variable)의 두 가지 형태로 개념화되었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인 Abell(1991)의 ICS(Index of Clinical Stress)가 활용되었다. “극도로 긴장해 있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등 총 25개의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은 1(전혀 없음)에서 7(항상)의 등간 척도로 응답하였다. 25개의 항목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한 평균값이 산출되었고 더 높은 평균값이 더 많은 스트레스의 체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ICS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4의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2) 사회적 지지

Zimet et al.(1988)이 개발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

도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수용하는 사회적 지지수준을 측정하였다. MSPSS척도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 그리고 주요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출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용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정말 그렇다)의 등간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MSPSS의 12개의 항목을 모두 합친 평균값이 사회적 지지변인의 값으로 활용되었고 더 높은 평균값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의 수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MSPSS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9로 집계되었다.

3) 심리사회적 안녕감

응답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의미하며 또 스트레스 체험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outcome variable)으로 알콜의존, 자기존중감, 가족관계 그리고 심리적 병리증후의 4개의 변인이 활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알콜의존은 Selzer(1971)가 개발한 MAST(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가 이용되었다. MAST는 본래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단축형태가 이용되었다. “음주로 인해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등의 14개의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MAST척도의 최종 값은 각 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한 후 그 값을 모두 더한 값으로 도출되었다. MAST척도에 대한 가능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4이며 14개의 항을 모두 더한 점수가 3이하이면 알콜문제가 전혀 없고, 4점이면 알콜의존에 가까운 상태, 그리고 5 이상이 되면 알콜의존의 상태로 분류가 된다. 한편, 본 표본집단에서 MAST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가 .70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존중감은 Rosenberg(김순이에서 재인용, 1985)의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활용하였다. “나 자신이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10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등간 척도로 응답하였다. 10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산출되었고 높은 평균값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의미한다. 자기존중감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현 표본집단에서 .75로 집계되었다.

가족관계의 측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Hudson(1992)이 개발한 IFR(Index of Family Relations)가 활용되었다.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25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중 하나에 응답을 하였다. 25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산출되었고 높은 평균값은 더 심각한 가족문제를 뜻한다. 현 표본집단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2로 집계되었다.

심리적 병리증후는 Bartone et al.(1989)의 SC(Symptom Checklis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본의 실직자들이 “어지러웠다,” “두통이 있었다” 등의 총 20개 항목의 다양한 심리적 병리증상

에 대해 1(전혀 없음)-4(매우 자주)의 등간 척도로 응답하였다. 현 표본집단에서의 SC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0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주요 변인들과 함께 실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실직과 관련된 질문들이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기법을 실행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 실직자의 스트레스 체험, 사회적 지지의 수용 및 심리사회적 상태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결과를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심리사회적 상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결과

변인(n)	척도분포	평균값	표준편차	분포
스트레스(364)	1-7	2.898	.977	5.00
사회적 지지(369)	1-5	3.608	.637	3.67
자기존중감(338)	1-4	2.814	.358	2.40
알콜의존(340)	1-35	4.382	4.498	25.00
가족관계(351)	1-4	1.866	.442	2.12
심리적 병리증후(351)	1-4	1.594	.465	2.55

먼저, 응답자들의 스트레스 체험빈도의 평균값은 2.89(표준편차=.97)로 밝혀져 1(전혀 없음)-7(항상)의 응답에서 3으로 코딩된 "드물게"와 가까운 빈도로 스트레스를 체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트레스변인의 평균값만을 본다면 표본실직자들의 스트레스 경험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표본집단이 실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명확한 추론은 도출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가족, 친구 및 주요 타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수용은 표본집단의 평균값이 3.60(표준편차=.63)로 1(전혀 그렇지 않다)-5(정말 그렇다)의 응답 중 "그렇다"(4로 코딩)에 근접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대부분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원만하게 수용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12개의 항목 중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의 항목이 4.06으로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사회적 지지의 출처로는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친구로부터의 지지로서 3.12의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출처에 따른 통계결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묻는 4개 문항의 평균값(3.87)이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개 항목의 평균값(3.45)과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개 항목의 평균값(3.53)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본실직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는 출처가 가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12개의 항목에 대한 Oblimin 회전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는 예상과 같이 가족, 친구, 그리고 주요 타인의 출처에 부합하는 3개의 요인에 각각 4개의 문항이 적재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4개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의미하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결과는 자기존중감의 평균값이 2.81(표준편차=.35)로서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 "그렇다"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다. 알콜의존은 평균값이 4.38(표준편차=4.49)로 집계되었는데, 전술한 MAST 측정도구는 가중치가 부여된 14개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4점 이상이면 알콜의존의 경향은 있으나 알콜의존의 상태는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 역시 표본 실직자들의 알콜의존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 가족관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가족관계 변인의 평균값도 1.86(표준편차=.44)으로 집계되어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 "그렇지 않다"에 근접, 표본 실직자들의 가족관계의 심각성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병리증상 체험빈도인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평균값은 1.59(표준편차=.46)로서 1(전혀 없음)-4(매우 자주)의 응답에서 "가끔"에 가까운 빈도로 심리적 병리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병리증후도 평균값만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인 <표2>를 보면 고학력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았고 ($r=.25, p<.01$)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r=-.22, p<.01$)을 보였다. 또 사회적 지지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응답자의 연령($r=-.19, p<.01$), 학력($r=.32, p<.01$) 그리고 소득수준($r=.15, p<.0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또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심리사회적 상태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으로 밝혀졌는데, 이 변인은 알콜의존을 제외한 자기존중감($r=.26$), 가족관계($r=-.15$), 그리고 심리적 병리증후($r=-.21$)의 변인들과 모두 유의도 .01수준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결국 학력수준이 높은 실직자일수록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또 심리적 병리증후의 체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스트레스 변인은 심리사회적 상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상관관계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변인은 알콜의존($r=.23$), 가족관계($r=.37$), 자기존중감($r=.36$) 변인들과 모두 .01 수준에서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스트레스변인과 심리적 병리증후의 변인의 상관관계지수는 .70($p<.001$)으로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명료하게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표2>에서 제시되었듯이 심리사회적 상태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적 병리증후는 가족관계($r=.32$), 자기존중감($r=.31$), 알콜의존($r=.20$)과 모두 유의도 .01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가족관계 역시 자기존중감($r=.53$)과 알콜의존($r=.16$)과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존중감도 알콜의존과 상관계수 $-.19(p<.01)$ 의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관분석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심각한 가족문제를 가진 경우 낮은 자기존중감, 심각한 가족문제상황과 알콜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병리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결국 표본 실직자들에게 실직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주요 인구학적 변인^a,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심리사회적 변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 연령	1.00								
2. 학력	-.40**								
3. 실직기간	.04	-.02							
4. 소득	-.22**	.25**	-.11						
5. 알콜의존	.13*	-.04	-.02	.03					
6. 자기존중감	-.05	.26**	-.04	.16*	-.19**				
7. 가족관계	-.07	-.15**	.10	-.07	.16**	-.53**			
8. 심리적 병리증후	-.01	-.21**	.02	-.12	.20**	-.31**	.32**		
9. 사회적 지지	-.12**	.32**	-.04	.15*	-.08	.39**	-.44**	-.24**	
10. 스트레스 체험	.04	-.15**	.02	-.11	.23**	-.36**	.37**	.70**	-.24**

주: * $p < .05$; ** $p < .01$

a. 학력: 1(무학) - 7(석사 이상); 소득: 1(50만원 이하) - 6(251만원 이상)

3.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에 대한 분석

1)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사회적 지지가 4개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이 실행되었다. 회귀분석에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 그리고 실직기간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함께 스트레스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변인이 독립변인으로서 동시에 투입되었다. 이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또 한 번의 통계분석이 실행되었는데, 이 회귀분석에는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출처의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어떤 유형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타인지지의 3가지로 분리되어 성별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함께 각각 투입되었다.

자기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3>에서 나타난 것 같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beta = .297$)이 스트레스의 영향력($\beta = -.266$)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존중감에 갖는 주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로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수준의 실직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을 소유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전술한 단순상관분석결과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들 중 학력수준변수만이 실직자들의 자기존중감에 영향력($\beta = .128, p < .05$)을 갖는 변수인 것이 밝혀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자기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한편 이 회귀분석에서 투입된 변인들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5.8%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출처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실행된 또 한 차례의 회귀분석에서는 가족지지($\beta = .177, p < .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친구지지($\beta = .048, p > .05$), 타인지지($\beta = .137, p > .05$)는 유의한 영향력을 못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세 가지 유형의 지지유형 중 가족의 지지가 표본실직자들의 자기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자기존중감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β	t(p)
성별 ^a	4.824E-02	.053	.972
연령	1.096E-03	.032	.549
학력	3.798E-02	.128*	2.118*
소득	-4.91E-02	-.020	-.389
실직기간	-2.99E-03	-.051	-.993
스트레스	-9.76E-02	-.266	-5.026***
사회적지지	.167	.297	5.422***
(Constant)	(2.269)		
R ²	.258		
F	14.537***		

주: * p < .05; *** p < .001

a. 성별: 0(여성), 1(남성)

알콜의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4>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변인은 β 값(-.014)이 0에 가까웠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스트레스($\beta=.256, p<.01$)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변인($\beta=.145, p<.05$)이 표본 실직자의 알콜의존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회귀분석결과는 알콜의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알콜의존에 대한 투입변수들의 설명력은 9.3%의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알콜의존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β	t(p)
성별	1.381	.120	1.952
연령	6.274E-02	.145	2.203*
학력	.136	.036	.531
소득	2.302E-02	.007	.128
실직기간	-1.61E-02	-.022	-.375
스트레스	1.180	.256	4.264***
사회적지지	-9.55E-02	-.014	-.218
(Constant)	(-2.698)		
R ²	.093		
F	4.076***		

주: * $p < .05$; *** $p < .001$

가족관계의 문제성을 의미하는 가족관계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확인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5>에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지지변인($\beta=-.400, p<.001$)은 회귀분석에 투입된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표본실직자들이 비교적 가족문제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구학적 변수 중 여성들이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beta=-.167, p<.01$) 연령이 적은 실직자들일수록 보다 심각한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체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111, p<.05$). 한편, 가족관계에 대해 투입된 변인들의 설명력은 33.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사회적 지지의 출처별로 독립적으로 투입된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가족지지($\beta=-.495, p<.001$)만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친구지지($\beta=.026, p>.05$), 타인지지($\beta=-.039, p>.05$)는 가족문제에 대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가족관계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β	t(p)
성별	-.188	-.167	-3.233**
연령	-4.71E-03	-.111	-2.010*
학력	-5.40E-04	-.001	-.026
소득	-1.876E-02	.062	1.266
실직기간	4.832E-03	.066	1.370
스트레스	.114	.253	5.021***
사회적지지	-.278	-.400	-7.697***
(Constant)	(2.821)		
R ²	.331		
F	20.649***		

주: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인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변인 ($\beta = .052$)은 심리적 병리증후에 거의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입된 변인 중 스트레스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β 값이 .01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스트레스변인($\beta = .679$)만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투입된 변수들의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설명력은 51.6%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심리적 병리증후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β	t(p)
성별	-3.52E-02	-.030	-.676
연령	4.127E-04	.009	.197
학력	-3.31E-02	-.086	-1.757
소득	3.142E-03	.010	.237
실직기간	-1.00E-05	.000	-.003
스트레스	.328	.679	15.870***
사회적지지	-3.79E-02	-.052	-1.174
(Constant)	(.948)		
R ²	.516		
F	44.493***		

주: *** p < .001

2)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의 일종인 위계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실행되었다. 위계회귀분석은 제 3변인으로서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검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독립, 종속, 그리고 매개 변인이 모두 상수변인(score variable)인 경우 활용되며 단계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장점이 있다(Koeske & Koeske, 1991). 이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을 곱한 값(product term)이 두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되며 반드시 매개변인의 직접적 영향 이후 회귀분석에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값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Cronbach, 1987) 평균거리 값(mean deviation score)이 이용되었다.²⁾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행된 회귀분석에서의 변인들의 투입과정은 5개의 통제변인들이 첫 번째, 스트레스변인에 대한 평균거리 값이 두 번째로, 사회적 지지변인에 대한 평균거리 값이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값이 투입되었다. 회귀분석결과 가장 마지막에 회귀분석에 투입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종속변인의 변량에 영향력을 갖는다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완충효과를 보다 분명히 관찰하기 위해 Cooley & Keesey(1981)와 Orpen(1982)이 제시한 매개변인의 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단순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실행되었다. 이 기법은 완충효과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매개변인의 수준에 따른 독립-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어 회귀분석에서 검증된 완충효과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기법으로 이용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중앙값(median score)을 정점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분화 하여 두 집단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상태변수간의 단순상관관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방법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아야만, 즉 상관관계가 약해야만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네 개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네 차례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표7>은 이와 같은 네 번의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로서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한 누적변량(R^2)과 누적변량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2) 평균거리 값은 (원래 변인 값 - 변인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평균거리 값은 원래 변인 값을 스트레스 변인의 평균값인 2.892에서 뺀 값이며, 사회적 지지의 평균거리 값 역시 원래 변인 값에서 사회적 지지변인의 평균값인 3.608을 뺀으로서 산출되었다. 또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스트레스 평균거리 값 X 사회적 지지 평균거리 값)으로 산출되었다.

<표 7> 통제변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변인들의 영향에 의한 심리사회적 상태변인들의 R²증가율

종속변인	투입 변인 ^a			
	통제변인 ^b	스트레스(ST)	사회적 지지(SS)	ST * SS
자기존중감	.09**	.09**	.07**	.03**
알콜의존	.03	.06**	.00	.01*
가족관계	.08**	.10**	.13**	.00
신체증후	.06**	.44**	.00	.00

주: * p < .05; ** p < .01

a. 통제변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의 순서로 투입

b. 통제변인=연령, 성별, 학력, 실직기간, 소득

첫 번째, 자기존중감이 종속변인이 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단계1에서 투입된 통제변수들은 9.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변화=4.071, p<.001). 스트레스 변인이 투입된 단계2에서는 첫 번째 단계보다 누적변량 9.6%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 변인은 단계3에 투입되어 전단계보다 누적 변량을 7.3%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계 2와 단계3에서의 F변화(각각 23.446, 19.481)는 모두 유의도 .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표3>에서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 투입된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영향 역시 누적 변량을 3.1% 증가시켰고(F변화=10.165, p<.001),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수행한 것을 시사한다. 결국 첫 번째 회귀분석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가 동시에 검증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좀 더 분명히 탐구하기 위한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n=166)에서의 스트레스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r=-.44, p<.001)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n=172)에서의 영향력(r=-.18, p<.05)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드러나, 상관계수의 강도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실직자들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알콜의존이 종속변인으로 실행된 회귀분석에서는 <표7>에 나타난 것과 같이 5개의 통제변인들에 의한 영향력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F변화=1.372, p>.05). 그러나 단계2에서 투입된 스트레스변인은 응답자의 알콜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F변화=14.482, p<.01) 누적변량을 6.2% 증가 시켰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투입된 단계3에서는 누적변량의 변화가 없어 사회적 지지의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표4>의 주효과 검증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투입된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누적 변량을 1.8% 증가시켜 .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 변화=3.984, $p < .01$). 이것은 완충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알콜의존에 대해서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완충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이분화 된 두 집단에서 스트레스-알콜의존의 단순상관관계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 ($n=169$, $r=.12$, $p < .05$)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n=168$, $r=.23$, $p < .001$)이 더욱 강한 것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알콜의존에 갖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표본실직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관계가 종속변인이 되어 실행된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단계1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통제변인들은 유의한 영향력(F 변화=3.879, $p < .01$)을 보였고 가족관계변인에 대해 8.9%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 단계2에 투입된 스트레스변수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F 변화=24.993, $p < .001$), 단계3에서 투입된 사회적 지지변인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F=39.611, $p < .001$) 종속변인에 대해 13.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 또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된 <표5>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단계4에 투입된 사회적 지지*스트레스의 완충효과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F 변화=.435, $p > .05$).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표본실직자들의 가족문제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두 집단 내에서의 스트레스-가족관계에 대한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n=178$)에서의 단순상관계수가 .27($p < .001$),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n=172$)에서의 상관계수는 .37($p < .001$)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관계가 약하기는 했지만 사회적 집단이 낮은 집단의 상관관계와 그다지 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 사회적 지지수준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에서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병리증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도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통제 변인들은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F 변화=2.826, $p < .05$),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스트레스변인의 영향력은 매우 강했으며(F 변화=181.448, $p < .001$), 전 단계보다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44.8%나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병리증후에 갖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못해(F 변화=.903, $p > .05$) <표6>의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검증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한편,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F 변화=.024, $p > .05$). 이 같은 결과는 심리적 병리증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가 주효과, 완충효과가 모두 없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병리증후에는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회귀분석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두 집단에서의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n=184$, $r=.67$, $p<.001$)과 낮은 집단($n=175$, $r=.71$, $p<.001$)에서의 스트레스-심리적 병리증후의 관계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관계없이 스트레스의 증가는 그들의 심리적 병리증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V. 논 의

1. 표본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상태

표본 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자기존중감, 알콜의존, 가족관계, 그리고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본 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위험한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추론은 <표1>에 나타난 네 개의 심리사회적 상태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의 심각성에 대한 평균값은 1.86으로 4등간 척도에서 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에 근접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또 가족문제의 심각성, 알콜의존성, 그리고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통계 결과 역시 거의 유사한 시사점을 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본 연구의 표본 실직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준 장소가 충주시에 위치한 노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본의 실직자들이 아직까지는 구직의 희망을 견지하며 나름대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의 실직자들은 구직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전혀 수행 못하는 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상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평균 실직기간(98년 7월 현재 4.3개월)에서 볼 수 있듯이 현 표본집단의 실직자들이 실직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급진적인 심리사회적 위기상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실직의 장기화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김재갑 외, 1998)에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은 현 표본집단이 실직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바, 비실직자와의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는 추론일 것이다. 한편, 심리사회적 상태와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는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실직자일수록 더욱 불안정한 심리사회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저학력, 저소득층의 사회적 지지의 수용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데,

이것은 결국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 저학력,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심리사회적 상태변인들의 기술통계결과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심리사회적 위기상태변인들간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표2 참조) 표본 실직자들에게서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은 결국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실직자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실직에 의해 보다 심각한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노력의 필요성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명료하게 밝혀졌듯이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결국 저소득, 저학력층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실직 이전에도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직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기반의 상실에 따른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표본 실직자들 중 1/3에 가까운 실직자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것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사회복지활동의 초점은 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서비스 개입의 측면에서는 구직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족문제 서비스 등 실직자대상의 서비스에서도 이들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스트레스 완충효과

사회적 지지의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주효과는 부분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즉, 심리사회적 상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자기존중감과 가족관계의 두 변인들에서만 검증이 되었고 알콜의존과 심리적 병리증후에는 주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실직자 대상의 기존연구들(Auslander, 1978; Gore, 1988 ; Jones, 1991a, 1991b)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갖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효과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인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알콜의존의 변인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알콜문화의 일반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것은 심리적 병리증후변인 지체가 스트레스 변인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혼입(confounding)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론은 두 변인들이 매우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와 더불어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의 불명확성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탐구되어진 스트레스가 갖는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심리적 병리증후의 체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라는 인과관계의 성립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방법론이 갖는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에 대한 한계점이 되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사회적 지지의 출처에 따른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주요 타인지지의 세 가지 유형에서 가족의 지지가 표본 실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의 출처이며 또 그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검증된 자기존중감과 가족관계의 변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실직자들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을 명확히 시사하는 결과이며 실직자들이 재취업 지원그룹으로 가족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허만형(199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실직자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실직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실직의 고통은 본인에게나 또 그 가족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실직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자원이 가족공동체로부터 제공되어진다면 그 자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의 출발점은 가족을 목표집단으로 하는 욕구분석과 이에 따른 서비스전략개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의 특징은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네 개의 변인들 중 일부 변인에서만 검증이 되었고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또한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기존중감과 알콜의존의 변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실직자들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변인의 설명력은 두 변인들에서 각각 3%, 1%로 밝혀져 완충효과 자체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수준의 완충효과는 기존 문헌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탐구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Cohen et al., 1986; Payne & Jones, 1987).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해도 실직의 커다란 고통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비자발적 실직이라는 생애의 커다란 경험에서부터 파생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사회적 상태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만으로는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의 강도가 아니라 완충효과의 수행여부가 될 수도 있다. Rosenthal & Rubin(1982)의 지적처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의 강도는 적지만 완충역할의 수행여부만이 검증된다고 해도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라는 매우 명료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가족관계와 심리적 병리증후의 변인들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의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나 명백한 완충효과는 없으나 원래의 가정에 부합되는 결과

를 도출해냈다. 즉, 큰 차이는 없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실직자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가족 관계와 심리적 병리증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약하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자기존중감 변인에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것 또한 본 연구결과의 특징이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탐구한 다른 연구(Cohen & Wills, 1985; Payne & Jones, 1987)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주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완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도 자기존중감 변인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보인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표7 참조). 이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직접 영향이 완충영향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며 완충영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으며 또 주효과가설이 완충효과가설에 비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4개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들 중 심리적 병리증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주효과 또는 완충효과가 작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실직으로부터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실직자의 사회적 지지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개입이 필요하다는 매우 명료한 시사점을 준다.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임시적이지만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과 공급전략이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개발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제한점

전술한 연구결과가 사회복지 서비스개입에 주는 시사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들이 실직자 대상의 구체적인 도구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스트레스의 측정에 이용된 ICS(Index of Clinical Stress)척도는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척도로서 실직자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실직관련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표본 실직자들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체험의 결과와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와 부분적인 지지에 머무른 결과가 이러한 제한점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추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실직자대상의 후속연구에서는 실직자의 특정한 상황에 부합하며 실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개념화된 독립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체험과 종속변인으로서의 심리사회적 상태변수에 대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의 불명확성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심리사회적 안녕

감을 의미하는 가족관계변인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이 아닌 스트레스의 원인변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예, Brenner & Mooney, 1993; 김유순 외, 1998; 이시형, 1998)에서 탐구되어진 것과 같이 실직과 이에 동반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로서 가족관계변인을 개념화하였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의 체험이 가족문제를 비롯한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원만치 못한 가족관계가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배제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일반화 역시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노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실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실직자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직자들은 아직까지는 구직의 희망을 견지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재취업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구직의 노력을 전혀 수행치 못하는 실직자들과는 심리사회적 안녕감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을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전략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실직의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과 그들의 욕구조사에 따른 서비스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VI. 결 론

실직자대상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시시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이론검증과 함께 실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전략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연구질문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지지이론과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 개입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상태는 아직까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가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시사점 도출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 서비스개입에 주는 더욱 중요한 시사점은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 저학력층의 인구집단에게서 좀더 집중적으로 나

타나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서비스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성격 또한 구직, 재취업훈련, 상담, 가족서비스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대한 중요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적인 지지만을 도출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이 같은 결과가 사회복지 서비스개입에 주는 실용적인 함의는 실직자를 위한 지지적 환경의 구축과 사회적 지지의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가족 지지의 중요성은 사회복지 서비스개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실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주체 또한 가족이라는 허만형(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 되어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기능이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질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실직의 고통을 겪는 가족 구성원에게 충분한 심리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며 또 구직 및 재취업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실직자 가정이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실업문제극복을 위한 정책노력이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고용창출 등의 거시적 활동뿐만 아니라 실직자 가정에 대한 욕구분석과 이 결과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설보다는 주효과 가설을 좀더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 역시 주효과 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지지에 그쳤고 완충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도 효과의 강도는 크지 않았던 결과가 이와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동시에 검증된 자기존중감 변인의 경우에서처럼 주효과와 완충효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결과를 상기할 때 이 같은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직이라는 생의 커다란 고통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의 실질적인 완충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가 실직이 가져다주는 심리사회적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원만한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은 될 수 있으나 실직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사후적인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전문인들이 실직의 최소화와 같은 예방적 활동에도 참여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거시적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의 개입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량실직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정책변화에 대한 사회복지인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순이. 1985. "암환자의 자기존중감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유순, 이영분. 1998.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83-103.
- 김재갑, 김은미, 이선이, 최우영. 1998.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 이시형. 1998. "불황의 사회심리적 연구: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가족의 역할".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나동석. 1992.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서미혜, 오가실. 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pp. 467-484.
- 정추자. 1992. "사회적 지지모임이 뇌척수손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정아. 1992. "사회적 지지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허만형. 1998.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그룹 분석". 지역사회복지운동. 제 7집. pp. 165-185.
- Abell, N. 1991. "The Index of Clinical Stress: A brief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for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7. p. 12-15.
- Aldwin, C.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tkinson, T., R. Liem & J. H. Liem. 1987. "Social cost of unemployment: Implications for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pp. 317-331.
- Auslander, G. K. 1988. "Social networks and health status of the unemployed." *Health and Social Work*. 13(3). pp. 191-200.
- Bartone, P. T., R. J. Ursano, K. M. Wright & L. H. Ingramham. 1989.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77. pp. 317-328.
- Bolton, W. & K. Oakley. 1987. "A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 unemployed men." *Psychological Medicine*. 17(2). pp. 453-460.
- Brenner, M. H. & A. Mooney. 1983. "Unemployment and health in the context of economic change." *Social Science of Medicine*. 17. pp. 1125-1183.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aplan, R. D. 1978. "Social support environment and coping." In *Mental Health and the Economy*. edited by L. A. Ferman & J. Gordu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pp. 89-13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pp. 300-314.
- Cohen, S. & G. McKay.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Vol 4). edited by A. Baum, J. E. Singer, & S. E. Taylor. pp. 253-268.
- Cohen, S. &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pp. 310-357.
- Cohen, S. & S. M.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Cohen, S., D. R. Sherrod & M. S. Clark. 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pp. 243-255.
- Cooley, E. J. & J. C. Keesey. 1981. "Moderator variables in life stress and 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uman Stress*. 7. pp. 35-40.
- Cronbach, L. J. 1987. "Statistical tests for moderator variables: Flaws in analyses recently proposed." *Psychological Bulletin*. 102. pp. 414-417.
- Gore, S. 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Hobfoll, S. E., A. Nadler & J. Leiberman. 1986.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during crisis : Intimacy and self- esteem as critical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pp. 196-304.
- Hudson, W. W. 1992. *The WAS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empe, AZ: WALMYR Publishing Co.
- Iverson, L. & S. Sabroe. 1988.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after a company shutdown."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pp. 141-152.
- Jones, L. 1991a. "Unemployment: The effect on social networks, depression, and

- reemployment opportuniti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5(1/2). pp. 1-22.
- _____. 1991b. "The health consequences of economic recess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Policy*. 3(2). pp. 1-14.
- Kasl, S. V. & S. Cobb. 1978. "Som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plant closing and job loss." In *Mental health and economy* edited by L.A. Ferman & J. Gordu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pp. 255-290.
- Kessler, R., J. House. & B. Turner. 1987. "Unemployment and health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1). pp. 51-19.
- Koeske, G. F. & R. D. Koeske. 1991. "Underestimation of social support buffer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7(4). pp. 475-489.
- Linn, M., R. Sandifer & S. Stein. 1985.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5(5). pp. 502-506.
- Maguire, L. 1991. *Social support systems in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Washington, D.C.: NASW Press.
- Orpen, C. 1982. "Type A personality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role overload on individual strain." *Journal of Human Stress*. 8. pp. 8-14.
- Payne, R. L. & N. L. Jones. 1987. "Measurement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al support." In *Research methods in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edited by S. V. Kasl & C. L. Cooper.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167-205.
- Rosenthal, R. & D. B. Rubin. 1982. *Contrast analysis: Focused comparison in the analysis of vari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zer, M. L. 1971.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The quest for a new diagnostic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pp. 89-94.
- Shumaker, S. A. & A. Brownell. 1984. "Toward a theory of social support: Closing conceptual gaps."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pp. 11-36.
- Schwarzer, R. & A. Leppin. 1991. Social support and health: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pp. 99-127.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Vaux, A., J. Phillips, L. Holly, B. Thompson, D. Williams & D. Stewart. 1986. "The Social

Support Appraisals(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5-219.

Vinkor, A. & R. D. Caplan. 1986. *Coping with job loss*.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Warr, P. & P. Jackson. 1985.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rolonged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Psychological Medicine*. 15(4). pp. 795-807.

Zimet, G. G.,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pp. 30-41.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Shin, Jun Seob · Lee, Young B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mpirical tests of the main effect and the stress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psychosocial well-being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in developing service strategies for the unemployed. Three-hundred-Sixty-nine(369) unemployed people in Choong-ju City and surrounding areas participated to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main and direct effects were partially supported by the data. In exploring the direct effect, social support from the family showed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on the well-being of the unemployed. In the test of the stress buffering effect, the results showed a marginal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against the negative impacts of stress. Drawn from the results, the needs for further research in investigating the social support theory were suggested and possibl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ocial work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unemployed were identified.

신준섭 Tel: 0441-840-3457 Fax: 0441-851-9326 E-mail: jsshin01@kcucc.cj.konkuk.ac.kr 천리안 sjssw	이영분 Tel: 0441-840-3453 Fax: 0441-851-9326 E-mail: yblee09@kcucc.cj.konkuk.ac.kr
--	--